

술 이 야 기



朴 昌 訓

<서호주정공업(주) 대표이사>

1. 序 言

술은 適當히 마시면 글자 그대로 藥酒요 지나치면 健康을 해치고 술로 失手를 자주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漢方에 의하면 모든 補藥에 間接的이기는 하지만 술이 들어가지 않는 境遇가 없다고 한다. 漢藥劑의 製造 過程에 술은 必須的으로 가미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現代社會를 살아가는데서 誘發되는 그 많은 스트레스를 술 없이 무엇으로 달래짚는가? 어느면에서는 술은 정녕 必要惡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즘의 술 習慣이나 매너에서 옛날의 浪漫과 風流, 멋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그 時節에 대한 鄉愁를 느끼게 한다.

2. 酒道 18段

바둑에 有段者가 있듯이 술을 마시는 能力, 樣態, 目的에 따라 옛 先人들은 酒道에도 有段이라 하였다. 酒道는 18개 段으로 이루어졌다. 즉

- 1단은 不酒로 술을 아주 못 먹지는 않지만 안 먹
는 사람
- 2단 畏酒로 술을 마시기는 마시나 술을 겁내
는 사람
- 3단 憊酒로 마실줄도 알고 겁내지도 않으나
취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
- 4단 隱酒로 마실줄도 알고 겁내지도 않고 취
할줄도 알지만 돈이 아쉬워서 혼자 숨어
마시는 사람
- 5단 商酒로 마실줄 알고 좋아도 하면서 잇속
이 있을 때만 술을 내는 사람
- 6단 色酒로 性生活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
람
- 7단 垂酒로 잠을 청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

■ 目 次 ■

- 1. 序 言
- 2. 酒道 18段
- 3. 外國의 이야기
- 4. 우리의 술

- 8단 飯酒로 밥맛을 돕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
 9단 學酒로 술의 眞境을 배우는 사람, 일명 酒卒
 10단 愛酒로 술의 趣味를 맛보는 사람, 일명 酒徒
 11단 嗜酒로 술의 眞味에 반한 사람, 일명 酒客
 12단 耽酒로 술의 眞境을 體得한 사람, 일명 酒豪
 13단 暴酒로 酒道를 修鍊하는 사람, 일명 酒狂
 14단 長酒로 酒道 三昧에 빠진 사람, 일명 酒仙
 15단 惜酒로 술을 아끼고 人情을 아끼는 사람, 일명 酒賢
 16단 樂酒로 마셔도 그만 안마셔도 그만, 술과 더불어 悠悠自適하는 사람, 酒聖
 17단 觀酒로 술을 보고 즐거워 하되 이제는 마실수 없는 사람, 酒宗
 18단 廢酒 : 涅槃酒(열반주)로 술로 말미암아 다른 술 세상으로 떠나게 된 사람

不酒, 畏酒, 憫酒, 隱酒는 술의 眞味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商酒, 色酒, 垂酒, 飯酒는 目的을 위해 마시는 사람들이니 술의 眞境을 모르는 이들도이다. 學酒의 자리에 올라서야 겨우 酒道 初級을 따고, 酒卒이 된다. 飯酒는 2級이요 차례로 내려가서 不酒는 9級이다. 愛酒, 嗜酒, 耽酒, 暴酒는 술의 眞境에 到達한 사람들이며 長酒, 惜酒, 樂酒, 觀酒는 술의 眞味를 體得한 사람들이다. 愛酒는 初段이요 嗜酒가 2段이요 涅槃酒가 9段으로 名人級이다.

3. 外國의 이야기

술과 술꾼 그리고 취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얽힌 興味 있는 俗談, 格言, 逸話는 수도 없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술의 歷史는 人類의 歷史와 같이 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美國의 아메리칸 인디안과 濠洲의 애보리지니 原住民을 除外하고는 世界의 모든 種族이 술을 마셨고 술의 文化가 있어 온 것이 事實이다. 러시아의 보드카, 네델란드의 진, 英國은 스카치, 美國은 버본, 佛蘭西의 브랜디 등과 같이 각 나라 마다는 獨特한 술이 있었다. 따라서 술에 관한 俗談과 逸話가 많을 수 밖에 없고 또 所謂 술 文化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英國의 哲人 러셀 같은 이는 술에 취하는 것을 “消極的인 幸福이며 不幸의 一時的 中止” 혹은 “一時的인 自殺”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퍼리 찬서는 “人間의 機智와 分別力의 무덤”이라고 하였다. 술꾼이란 “술이 있어도 못 살고 없어서도 못 사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취하는 것이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는 말은 英國의 俗談이다. “바보의 헛바닥이며 건달의 마음” 또한 술꾼이란 “바보... 짐승... 惡魔”이고 “술병과 마찬가지로 목과 배만 있을뿐 머리는 없다”고 하였다. 詩人 바이론은 “思考로 부터 잠시 떠나는 休息”이라 하였다. “健康을 위해서 祝杯를 들고 健康을 해친다”는 逆說이라고 J.K.제롬이 말하였다. “女子가 술을 한잔 마시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두잔을 마시면 品位를 떨어 뜨리고 석잔째는 不道德하게 되며 넉잔째 가서는 自滅한다”고 했다.

過去 蘇聯邦은 兵營化, 硬直化된 社會였으며 西方世界에 비하여 레저 產業이 턱 없이 不足한 社會였다. 이러한 이들의 社會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술의 범람을 誘導, 獎勵한 側面이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드카를 위시한 多量의 여러가지 술을 供給한 事實과 飲酒 年齡을 16세 이상으로 한 것만 보아도 짐작이 된다. 이는 다른 나라가 普通 21세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飲酒로 인한 各種 犯罪의 蔓延과 缺損家庭을 量産하는등 深刻한 社會問題에 逢着하게 되었다. 작금 우리 政府가 試圖하는 酒類 生産과 販賣의 自由化는 不良 密酒의 量産은 물론 舊蘇聯邦의 失策

을 되풀이 할 것 같은 憂慮를 금치 못하게 한다. 지난 번에 斷行한 燒酎免許制度의 撤廢는 이미 不良 密造酒 氾濫의 徵兆가 보이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國家 改革은 이같은 社會問題 撲滅의 試圖가 그 始發이었다. 그는 보드카의 生産을 줄이고 價格을 높이는 一種의 禁酒政策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술취한 남편의 그늘에서 엄청난 試鍊을 겪어야 했던 蘇聯 女性들은 고르바초프를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人氣가 그렇게 높았던 理由가 그의 映畫 俳優 畔치는 마스크에만 있었던 것은 絶對 아니었다.

獨裁者들은 대체적으로 禁酒家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틀러는 肉食을 하지 않았고 禁酒家였으며 담배 역시 피우지 않았다. 이러한 숨막히는 美德에다가 禁慾이라는 美德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무솔리니는 飲食을 먹는 데에는 大食家였으나 그 역시 술을 頑強히 排斥했고 가끔 혼자 葡萄酒를 가볍게 한잔 할 정도였다. 스탈린은 방 셋으로 된 집에서 極度로 勤儉 節約하는 生活을 하며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수수한 옷을 입었고, 무서우리 만큼 簡素한 食事を 했으며, 술은 마치 鑑定士처럼 브랜디를 조금 마실 뿐이었다.”

그러나 <후루시초프의 回顧錄>을 보면 스탈린은 대단한 飲酒家로 描寫되고 있다. 밤에 그의 집 술자리는 政治謀議의 場所가 되었고, 술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그 곳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肅清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戰戰兢兢해야 했다고 되어 있다. 어느 것이 定說인지는 時間이 좀 더 흐른 후에야 밝혀질 것 같다.

不老長生の 秘藥을 찾는 中國의 帝王들을 위해 여러가지 強精劑로서 藥酒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의 하나가 虎骨酒였다. 호랑이 뼈(특히 정강이의 뼈를 구워서 響음)를 뱀 쓸개, 人蔘, 진피(陳皮: 오래 묵은 귤 껍질)등을 넣어 담근 술을 蒸溜한 것으로 貴重히 여겨온 強精劑 술이다. 그러나 호랑이의 뼈가 귀하기 때문에 양이나 돼지의 뼈로 담근

骨酒가 虎骨酒로 둔갑하는 境遇가 많이 생길수 밖에 없었다.

4. 우리의 술

그러면 現實的으로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種類의 술을 마시는가? 世界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술도 大別하여 釀造酒와 蒸溜酒로 區分될 수 있을 것이다. 釀造酒는 막걸리, 淸酒, 麥酒 등이 있으며 蒸溜酒로는 燒酎, 一般 蒸溜酒, 위스키, 果實酒, 리큐르, 蒸溜式 燒酎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生産되는 總 酒精(알콜)의 量은 1백여만 ㄷ립이 되고 있으며 그중 90% 程度가 燒酎, 즉 稀釋式 燒酎를 製造하는데 原料로 使用되고 있다. 나머지 대략 10% 정도 만이 淸酒, 위스키, 果實酒, 리큐르 등의 原酒로서 혹은 添加用으로 消耗되고 있다. 酒精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30도 內외의 稀釋式 燒酎 原料로 90% 程度가 使用되고 있다.

그러면 酒精이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酒精은 95도, 또는 西洋式 알콜 度數의 單位로는 190 푸루프(190 Proof)가 되는 아주 純粹한 알콜을 意味한다. 普通 우리가 접하는 위스키의 度數는 대략 80 내지 86 푸루프가 된다. 이러한 酒精의 原料로는 쌀, 보리, 고구마 그리고 外國으로 부터 輸入하는 타피오카라는 食用 植物의 球根이 있다. 一年을 基準으로 酒精을 生産하기 위해서 5個月間은 쌀을 原料로 쓰며, 4個月間은 보리, 고구마는 1個月, 타피오카는 2個月間 쓰게 되어 있다. 酒精은 穀物을 醱酵시켜 母酒를 만들고 이를 蒸溜하여 만든다. 酒精은 穀物로 만든다.

다시 말해 酒精은 물론 酒精을 原料로 해서 生産되는 모든 稀釋式 燒酎는 穀酒일 수 밖에 없다. 또한 酒精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치를 때리고 숙취를 誘發하는 알데하이드와 揮發油라는 化學物質을 生産 過程에서 完全히 除去하고 있다. 한마디

로 稀釋式 燒酎는 異物質이 전혀 없는 純粹한 穀酒인 것이다.

92년 9월 大韓主婦클럽聯合<會長 金天柱>이 韓國消費者保護院 實驗室을 통해 糾明한 것을 發表한 報告書에서 稀釋式 燒酎가 洋酒보다도 또한 純度 95도 以下로 蒸溜한 어떠한 蒸溜酒 보다도 優秀하다는 것이 立證되었다. 이 報告書는 여러 日刊紙에 發表 되었다. 다시 말해 稀釋式 燒酎에는 어떠한 有名 洋酒 보다도 不純物이 적다는 事實이 立證된 것이다.

이러한 酒精을 生産하는 業體는 全國的으로 13개 會社가 있으며 그중 5個社가 우리 全羅北道에 位置하고 있다. 群山에 세개 工場, 裡里에 하나 그리고 全州이 하나가 있다. 왜 우리 全北에 이렇게 많은 酒精工場과 釀造場이 있는지 그 理由는 確實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 고장이 자고로 고구마 產地였고 穀倉地帶였었기 때문에 酒精會社뿐만 아니고 다른 釀造業體도 多數 集結하게 된 原因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우리 地域이 過去 다른 分野의 産業을 이르켜 成功하지 못하고 단지 在來式 傳統産業인 釀造業에만 매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地域이 豊饒한

農耕社會의 전형이 되다 보니 그 結果로 생긴 弊端인 먹고 마시고 書畫를 즐기며 風樂을 울리는 일에 만 너무 열심이 아니었나 하는 自責感이 들기도 한다.

道內 5개 酒精會社와 1개 釀造酒 會社의 지난해 年間 賣上은 약 1,720여억이며 納付 酒稅의 總額은 약 395억에 이르고 있다. 酒稅 395억중 地方 讓與稅로 떨어졌던 金額은 全體 酒稅의 60%인 約 23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5개 酒精會社가 納付하는 法人稅는 每年 一定치는 않지만 약 3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道內 酒類業界가 雇傭하는 勤勞者는 約 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오늘 이 같은 술에 대한 보잘 것 없는 詰問을 쓰게 된 것은 日前에 本人을 잘 알며 술과 酒精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것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의외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을 發見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극히 簡單한 常識이라고 할 수 있는 稀釋式 燒酎가 純粹한 穀酒라는 것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事實에 若干은 놀라며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商品 PR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罪悚스럽게 생각하며 諒解 있으시기를 祈한다.